

시민 공론장의 연대와 균열

홍찬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1. 공론장이란 무엇인가?

- 하버마스: “공적 의사소통의 연결망“, 근대적 공/사 분리와 관련
- 아렌트: 공공성 (말 이외의 힘을 배제한 담론의 공간)
 - ‘정치적인 것’의 일반적 특성
 - 행태(전통)/노동(생존)/행위(탁월하고 저항적)
 - Cf. 하버마스: 과시적 공론장

⇒ 습관이나 이익과 무관한, ‘공동의 세계’에 대한 탁월한 정치적 담론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사용

2. 유교의 공론 개념

- 공자의 ‘공’ 개념
 - 과거 주나라의 통치도덕 (지배층 혈연공동체의 도덕)
 - ‘사’는 이익추구를 의미
 - 아렌트의 ‘공공성’ 개념 보다는 잃어버린 전통으로의 회귀
- 주희의 ‘공’ 개념: ‘공’=하늘의 이치=종족 유지의 도덕
 - 일반백성에게도 적용
 - ‘공론의 정치’ 주장

3. 유교 공론장 개념

- 아렌트의 ‘공공성’ 개념과 비교: 저항<복고
 - 하버마스와 비교:
 - 공/사 구분 내용의 차이: ‘효’는 ‘공’의 기본
 - ‘과시적 공론장’ 개념과 유사
 - 그러나 지배계급이 서구와 달리 문인이었으므로, 무력보다 도덕성이 과시되는 공간이라는 차이
- ⇒ 도덕성을 과시하는 문인지배의 특성(‘민심론’)으로 말미암아 유교 공론장의 ‘근대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임

4. 유교 공론장은 근대적이었나?

- 김상준: “기해예송이 근대화의 기점” (중국은 송의 건국)
- 근대성 개념: 성속의 통섭 전도 (계기: 송대에 재정립된 종법론=유교적 세속화 기제)
- 기해예송 이후 종법론은 신분상승을 위한 정치투쟁 수단으로 세속화함 → 붕당정치를 통한 유교정치의 전국화 → 근대적 수준의 유교적 공론장 탄생 → 신분제 동요
- ‘소중화’ 사상=근대 국민국가의 정체성
- 대중유교화한 동학으로 연결

5. 유교 공론장은 근대적이지 않았다

- 17세기 이후 신분제의 동요와 동시에 종법제의 확대(‘중국화’)는 반봉건적 재정비가 아니라 봉건질서에서의 편승을 통한 봉건질서의 약화로 보아야 할 것
- 종법제의 ‘확대’ 또는 제도화는 루터의 종교개혁보다는 오히려 구교의 면죄부 판매와 더 가깝다
- 근대적 문화변동을 수반하지 않은 권력분점

7. 동학 공론장

- 조선의 민본 제도: 실질적으로 일반 백성이 참여하는 공론장은 없었다
- 동학도들은 자신들의 집회를 서구의 민회에 비유
 - Cf. 아렌트의 ‘공공성’ 개념
 - Cf. 하버마스의 ‘부르주아 공론장’ 개념: 공/사 구분
- 송호근: 동학=종교의 개인화
 - ‘천(하늘)’ 개념의 인격화
 - 개인, 사회, 시민이 원형적 형태로 탄생

8. 디지털 매체와 새로운 공론장

- 한국에서 인쇄문화는 시민 공론장 형성에 크게 공헌하지 못함
- 방송문화 역시 마찬가지
-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비로소 개인이 자기만의 의견을 발화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
-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온라인 공론장이 성장, 다양화
⇒ 2002, 2008년 촛불시위로 개인화 기반의 사회적 저항 출현
- 광화문 광장의 시민적 점유: 2002 월드컵 응원

9. 한국에서 민주화 공론장의 성격

- 송호근: “유교 공론장이 신식 지식인 공론장으로 전환하여 자유주의를 전파하고 내실을 다지는 교양시민의 역할을 수행“



-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공론장은 신식 지식인 공론장이거나, 자유주의를 전파하지는 않았다
 - 4.19~6.10항쟁: 지식인들의 저항적 공론장에 기초
 - 서구 근대적 공/사 구분 도입: 유교 가족제도의 사생활화
 - 국가 민주화
- ⇒ 아렌트의 의미에서 ‘공공성’의 정치 추구

- 그러나 하버마스의 의미에서 근대적 공론장은 형성되지 않음
- ‘효’가 사적인 도덕으로 축소되었으나, 사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종법제적 유교 윤리 계승
- 1989년 가족법 개정을 계기로 법적 차원에서 종법제 탈피
⇒ 개인화와 관련하여 남녀 간의 문화적 차이 확대

10. 한국사회의 압축적 개인화

- 1989년 가족법 개정, 2008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개인 신분이 ‘가’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등록
- 산업화 성공의 결과 정치 민주화와 함께 다양한 욕구 분출
- 디지털 매체를 통해 개인만의 공간 및 연결성 확보
- 신자유주의적 생애위험 증가
- 무차별적인 각종 위험의 발생으로 일반 시민의 불안 증가
→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적 위험’으로 인식 (연대)
강남역 사건을 통해 ‘여성 전체’의 위험으로 인식 (균열)

11. 2016-17년 광화문 시민 공론장

- 압축적 개인화의 추세 속에서 근·현대적 시민 공론장이 압축적으로 형성됨을 보여줌
- 현대적 신사회운동 방식으로 근대적 국민주권을 경험 (발언의 자유)
- 집단주의 세대와 개인주의 세대의 화해?
⇒ 전국민적 연대 속에서 시민주권의 효능감 경험
혁명<탈바꿈: 개인들이 주도
압축적 탈바꿈: 구체제(‘적폐’)에 대한 시민적 항거

12. 촛불혁명의 선행 형태

- 5.18
 - 국가폭력의 위험에 의해 시민 전체가 정치화한 사례

13. 시민 공론장의 연대와 균열

- 촛불광장은 국민적 연대의 장이었으나

- 내부의 균열: '페미존'

- 강남역 사건 이후 '국민'이 성별로 나뉜다는 인식 확산

- 여성에게만 닥치는 위험: 디지털 매체와 함께 증가해옴

⇒ 디지털 매체는 시민 공론장 형성에 공을 세운 만큼, 시민 공론장에 균열을 초래: 디지털 매체를 통해 확산된 여성혐오, 디지털 성폭력, 몰카 등 친밀한 관계 내외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 증가

⇒ 적폐를 낳은 군사적+획일주의+집단주의 문화로 인해서 적폐가 성적 위험의 성격을 띠는 문제 → 양성 간 균열 확대

인간개발지수 (HDI)

-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수명 등 인간 발전 정도 및 선진화 평가 지수

2017년 [편집]

이 지수는 2017년 3월 27일에 공개되었다. 자료는 2016년 기준이다.

- | | | |
|--|---|---|
| 1.  노르웨이 | 18.  대한민국 | 33.  카타르 |
| 2.  오스트레일리아 | 19.  이스라엘 | 36.  폴란드 |
| 2.  스위스 | 20.  룩셈부르크 | 37.  리투아니아 |
| 4.  독일 | 21.  프랑스 | 38.  칠레 |
| 5.  덴마크 | 22.  벨기에 | 38.  사우디아라비아 |
| 5.  싱가포르 | 23.  핀란드 | 40.  슬로바키아 |
| 7.  네덜란드 | 24.  오스트리아 | 41.  포르투갈 |
| 8.  아일랜드 | 25.  슬로베니아 | 42.  아랍에미리트 |
| 9.  아이슬란드 | 26.  이탈리아 | 43.  헝가리 |
| 10.  캐나다 | 27.  스페인 | 44.  라트비아 |
| 10.  미국 | 28.  체코 | 45.  아르헨티나 |
| 12.  홍콩 | 29.  그리스 | 45.  크로아티아 |
| 13.  뉴질랜드 | 30.  브루나이 | 47.  바레인 |
| 14.  스웨덴 | 30.  에스토니아 | 48.  몬테네그로 |
| 15.  리히텐슈타인 | 32.  안도라 | 49.  러시아 |
| 16.  영국 | 33.  키프로스 | 50.  루마니아 |
| 17.  일본 | 33.  몰타 | 51.  쿠웨이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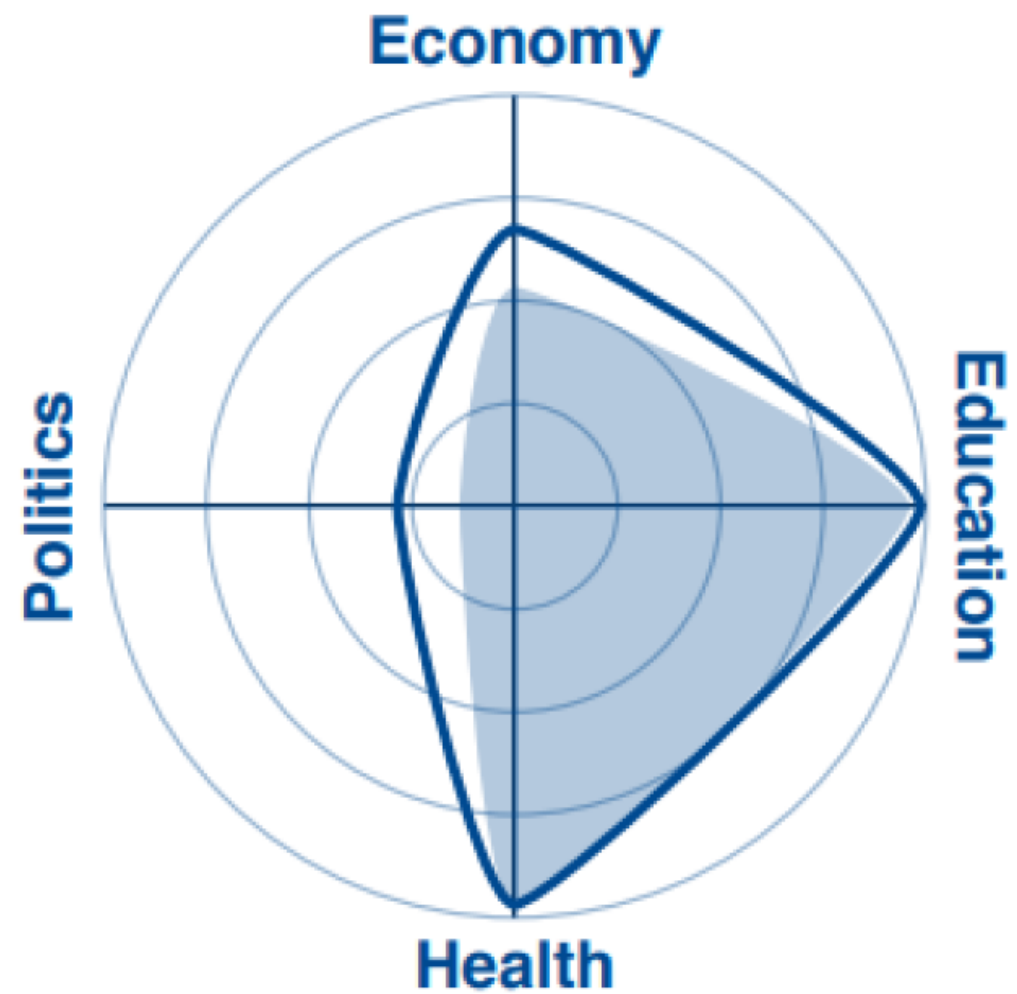
2008년 [편집]

1.  아이슬란드 0.968 (→)
2.  노르웨이 0.968 (→)
3.  캐나다 0.967 (▲ 1)
4.  오스트레일리아 0.965 (▼ 1)
5.  아일랜드 0.960 (→)
6.  네덜란드 0.958 (▲ 3)
7.  스웨덴 0.958 (▼ 1)
8.  일본 0.956 (→)
9.  룩셈부르크 0.956 (▲ 9)
10.  스위스 0.955 (▼ 3)
11.  프랑스 0.955 (▼ 1)
12.  핀란드 0.954 (▼ 1)
13.  덴마크 0.952 (▲ 1)
14.  오스트리아 0.951 (▲ 1)
15.  미국 0.950 (▼ 3)
16.  스페인 0.949 (▼ 3)
17.  벨기에 0.948 (▼ 1)
18.  그리스 0.947 (▲ 6)
19.  이탈리아 0.945 (▲ 1)
20.  뉴질랜드 0.944 (▼ 1)
21.  영국 0.942 (▼ 4)
22.  홍콩 0.942 (▼ 1)
23.  독일 0.940 (▼ 1)
24.  이스라엘 0.930 (▼ 1)
25.  대한민국 0.928 (▲ 1)
26.  슬로베니아 0.923 (▲ 1)
27.  브루나이 0.919 (▲ 3)
28.  싱가포르 0.918 (▼ 3)
29.  쿠웨이트 0.912 (▲ 4)
30.  키프로스 0.912 (▼ 2)
31.  아랍에미리트 0.903 (▲ 8)
32.  바레인 0.902 (▲ 9)
33.  포르투갈 0.900 (▼ 4)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

144개국 중 118위

India	108
Sri Lanka	109
Guatemala	110
Nepal	111
Mauritius	112
Guinea	113
Japan	114
Ethiopia	115
Benin	116
Tunisia	117
Korea, Rep.	118
Gambia, The	119
United Arab Emirates	120
Burkina Faso	121
Nigeria	122



■ Korea, Rep. score

— average score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8

130개국 중 108위

Zimbabwe	92
Indonesia	93
Cambodia	94
Mauritius	95
Malaysia	96
Mexico	97
Japan	98
Brunei Darussalam*	99
Paraguay	100
Kuwait	101
Nigeria	102
Tunisia	103
Jordan	104
United Arab Emirates	105
Zambia	106
Syria	107
Korea, Rep.	108
Mali	109
Mauritania	110
Algeria	111

